

CBS '신천지 OUT' 캠페인, 한국교회 확산

신천지 고발 사이트 개설하고 신천지와 전면전 선포

CBS가 전사적으로 벌이고 있는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척결운동에 한국교회가 폭발적 참여와 성원을 보내오고 있다.

CBS, 전사적 역량 결집으로 신천지 대책 TFT 발족

CBS는 지난 7월 16일 신천지 고발 웹사이트 'CBS특별기획' '한국교회를 지키자, 신천지 OUT!'을 공식 오픈하고 각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이단상담소협회, 신천지대책 전국연합 등과 연대해 신천지 척결 활동에 돌입했다.

CBS는 이를 위해 TV국, 보도국, 편성국, 크로스미디어센터, 선교본부 등이 대거 참여한 신천지 대책 데스크포스트를 구성했다.

〈신천지 OUT!〉 사이트는 신천지의 이단성과 교회침투 파괴, 신도유인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과 신천지 포교 전략에 대처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소창에 '안티신천지.kr' 혹은 'http://antiscj.cbs.co.kr'를 입력해 접속할 수 있다.

〈신천지 OUT!〉 폭발적 반응 동영상 다운로드, SNS 공유

〈신천지 OUT!〉 사이트는 오픈 이후 1주일간 10만 페이지뷰를 기록할 만큼 크리스천들의 방문이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CBS가 방송으로 고발한 신천지 관련 동영상과 뉴스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교계에 확산시키는 등 신천지 척결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사이트 내 모든 페이지와 동영상은 SNS로 공유되고 있으며 공식 트위터 계정(@antiscj)의 팔로워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보 게시판에는 전국 곳곳에서 100여건이 넘는 고발이 접수돼 취재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천지대책 전국연합과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 게시판(www.antiscj.net)에도 상담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 웹사이트(안티신천지.kr)도 오픈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천지 척결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BS 뉴스〉 정규 코너편성 CBS TV 특집방송 제작

CBS는 사이트 오픈 이후 신천지 관련 특집 좌담회와 보도물을 집중적으로 제작, 방송해 오고 있다.

CBS 라디오 〈나이영의 CBS 광장(주일 오후 5시5분)〉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특집 좌담회를 방송했으며 CBS TV 〈CBS 뉴스〉에서는 매주 한 차례씩 신천지 특별기획을 내보내고 있다. (화 저녁 7시반, 9시40분, 수 오전 7시20분, 낮 1시 방송)

이밖에도 CBS가 보유한 인터



CBS가 개설한 '신천지 OUT!' 사이트 메인화면

넷 노컷뉴스, 일간지 데일리노컷, 스마트 애플리케이션(CBS TV)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해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각 교회 홈페이지 내 배너달기 및 주보 QR달기 운동이 뜨거운 호응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각 교단과 이단상담소, 피해자 단체들과 협력하여 고발강연, 피해증언, 대책세미나 운영 등 다양한 기획과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최근 CBS에 대한 신천지 측의 공격도 본격화되고 있다. 신천지는 CBS가 YouTube

에 운영 중인 CBS 교계뉴스(theCBSCROSS)를 상대로 저작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신천지의 CBS 공격 본격화 CBS, 교회 수호 위해 대응

8월 초에는 신천지 광주시온교회측이 저작권 위반혐의로 CBS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YouTube 측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CBS는 보도, 비평을 목적으로 인용한 신천지 자료의 사용



이 국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법률적 대비를 마친 상태이다.

CBS는 앞으로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를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신천지 뿐만 아니라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도 물러섬 없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2 CBS는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신천지 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이를 상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3 CBS의 신천지 척결운동이 전국 교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널리 확산되고 있다.



5 스마트미디어의 선두주자 CBS는 크리스천 콘텐츠를 확산해 땅끝 선교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6 김재범 선수의 금메달이 더 빛나는 이유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이다.



7 CBS는 제39회 한국방송대상에서 뉴스·시사부문을 휩쓸어 58년 전통의 방송 저력을 보여 주었다.

“신천지 퇴출은 CBS의 거룩한 사명”

인사말

CBS 이재천 사장

CBS는 신천지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신천지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무기한 집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세력은 성도들의 영혼과 건강한 교회를 무너뜨림은 물론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와 혼란을 야기합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교회의 탈을 쓰고 건강한 교회와 선량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

습니다. 신천지의 마수에 걸려 교회와 성도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CBS임직원들은 함께 기도하며 신천지의 폐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CBS가 순교할 각오로 신천지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라’는 것이 하나님 이 이 시대 CBS에 주신 거룩한 사명이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CBS는 CBS가 보유



하고 있는 TV와 라디오, 인터넷 노컷뉴스, 신문과 스마트 미디어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 신천지 퇴출을 위한 기획보도와 방

송 등 집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CBS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천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에 개설한 ‘한국교회를 지키자 - 신천지 OUT’ 사이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사이트에서는 신천지의 정체와 피해사례 등을 고발하고,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는 법’과 ‘피해사례 제보’등을 통해 신천지 퇴출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목사님들은 물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져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교인

들과 자녀들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단 신천지 세력 퇴출에 나서고 있는 CBS는 지금 결코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이 길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주시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은혜를 더 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협력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신천지 척결에 나서준 것 너무 감사”

격려 전화와 기도, 배너 동참하기 등 교회들 CBS에 동참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는 신천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CBS에 교계의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지난 8월 8일 CBS 직원예배에 참석해 격려헌금을 전달하고 이단 사이비 세력 척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도 금일봉을 전달하고 이단 척결에 나선 CBS를 격려했다.

이밖에도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격려 전화가 쇄도하는 한편, CBS를 지키겠다는 다짐들이 이어지고 있다. 또 오륜교회와 포도나무교회, 부산호산나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CBS의 ‘신천지 OUT’ 사이트를



오정호 목사가 신천지 척결을 위한 성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교회 홈페이지에 연결시켜 CBS의 신천지 퇴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CBS 인터뷰 프로그램 ‘미

션인터뷰’(8/18일 방송)에서 “이단 사이비 척결에 개교회들이 나서곤 하지만 역부족인 게 현실”이라며 “오랜 역사를 지닌 방송선교 연합기관, CBS가 나

서준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치하했다.

오목사는 또 “CBS 기독교방송이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이단 신천지 척결에 나선 만큼, CBS는 한국교회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신천지와 전면전을 선포한 CBS에 더 많은 교회가 관심과 기도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각 교회 후원금을 접수받고 있는 CBS 선교본부는 “이단 척결은 CBS 기독교방송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사명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면서 “교회의 후원 여부를 떠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천지 광주 피해사례

여름방학 동안 광주지역에서는 신천지 활동으로 인한 가정과 사회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얼마전 부모가 신천지에 빠진 딸을 강제로 빼내다 납치로 오인된, 이른바 J대 납치사건 이후 광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J대의 경우, 대학본부 관계자나 동아리연합회장에 따르면 신천지가 점조식으로 파고들어 실제 파악이 어렵지만 신천지 신자인 학생들이 동아리에 잠입해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J대 관계자는 전체 학생 1만 6천명 가운데 적어도 수 백명 정도는 신천지 학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천지 때문에 휴학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적극적인 포교를 위해 오히려 편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신천지 학생들은 기독교나 천주교 관련 동아리에 잠입해 회원들을 포섭하거나 기독교나 천주교 동아리를 사칭해 신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신천지에 대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교회와 성당, 대학에 신천지 신도들이 깊숙이 침투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 힘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CBS, 신천지 대책 TF팀 상시 가동

전사적 참여, 전국적 방송... 그야말로 ‘전면전’

CBS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팀을 구성했다.

대책팀장을 맡은 변상욱 CBS 콘텐츠본부장은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파고드는 것에 대해 그동안 교계와 CBS는 막는데 급급한 방어적 입장을 보였다”면서 “신천지로부터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신천지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 신천지를 사회로부터 격리

시키는 공격적 입장에 서야하며, 이를 위해 CBS가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BS는 이를 위해 TV국, 보도국, 편성국, 크로스미디어센터, 선교본부 등이 대거 참여하는 신천지 대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CBS가 이처럼 신천지 대응 활동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신천지가 한국교회와 CBS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CBS는 향후 국내 유명 포털



CBS는 신천지 대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등에도 신천지 관련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올려 한국교회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신천지의 실상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변 본부장은 “CBS가 한국교

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를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전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전국 교계, CBS의 신천지 척결 운동 적극 지지

대전/경남/전북/광주

전국의 교계가 CBS 〈신천지 OUT〉 캠페인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CBS의 신천지 척결운동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먼저 대전CBS는 지난 5월19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7천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단대책세미나를 갖고 신천지에 대한 전면전에 나섰다. 이번 이단대책세미나는 대전CBS와 지역 교회, 연합기관이 하나가 돼 이단세력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대전성서화운동본부 임원과 대전기독교연합회 관계자, 목회자들은 한 목소리로 거짓된 교리로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에 게 엄중한 경고를 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경남CBS는 8월 12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국가발전과 경남 복음화를 위한 8.15 특

별기도성회〉에 특별 부스를 설치하고 CBS가 이단 신천지로 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신천지 OUT’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2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이단 신천지의 실체를 파헤치는 CBS 홍보영상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공동주최한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성서화운동본부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이단 신천지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나선 CBS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 이단 신천지와 관련한 CBS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전북CBS도 8월 12일, 전북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광복절 연합예배’에서 CBS의 〈신천지 OUT〉 홍보영상을 상영해 크게 주목받았다. 성도 3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예배에는 이단 세력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교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참석자 모



대전CBS가 이단대책세미나를 갖고 신천지에 대한 전면전에 나섰다.

두가 CBS 〈신천지 OUT〉 홍보영상을 관람했다. 그동안 개 교회가 나서서 신천지 문제를 대응해온 점을 감안할 때, 전북기독교연합회가 CBS 영상을 인용해 공개적으로 신천지 문제를 알리고 대책을 고민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자리였다. 전북CBS는 〈신천지 OUT〉웹사이트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련 영상을 CD로 제작,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광주CBS도 최근 신천지 관련 납치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

인 보도를 하고, 9월3일 광주장로교협의회가 광주양림교회에서 개최한 이단대책세미나 등을 적극 보도하는 등 신천지 척결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CBS의 모든 지역본부는

〈신천지 OUT〉 캠페인 홍보 요청 공문을 지역 교회에 발송하고, 지역 교계와 함께 이단대책세미나 등을 기획 준비하는 등 전사적인 신천지 OUT 캠페인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CBS(좌)와 전북CBS(우)의 '신천지OUT' 캠페인 홍보 활동.



신천지 실체 지속적으로 폭로

〈CBS TV 뉴스〉 매주 화요일 '신천지 OUT' 코너 마련

TV

CBS TV 보도부가 신천지 실체를 폭로하고 피해실태를 고발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한차례씩 고정코너를 통해 보도하고 있다.

지난 해 1월부터 신천지 고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TV보도부(종교부)는 'CBS 특별 기획- 한국교회를 지키자, 신천지 OUT' 기획에 맞춰 매주 화요일 '신천지 OUT' 코너를 신설하고 신천지의 허구성과 반사회적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첫 기획보도에서는 신천지가 왜곡 해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명'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소개해, 신천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TV보도부가 신천지 실체를 폭로하는 기사를 매주 고정코너를 통해 보도하고 있다.

이어 지난 8월 7일에는 신천지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지만 “이단 사이비에 대한 비판은 공익적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법원의 여러 판결을 소개해, 이미 법원으로부터도 신천

지가 반사회적 단체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또 지난 14일에는 신천지로 인해 이혼하거나 자살하는 등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신천지의 폐해가 얼마나 큰 지 경각심을 일깨웠다.

신천지 실체 고발하는 3부작 기획시리즈 방송

라디오

기독교계의 주요 이슈를 진단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CBS광장(진행 나이영 CBS종교부장)에서는 이단집단인 신천지의

실체와 피해사례를 고발하는 3부작 기획시리즈를 방송했다.

7월 29일에 방송된 첫 회에서는 엄승욱 신천지대책전국연합총무와 신천지에 포섭돼 강사로 활동하다 회심하여 신천지

의 이단성을 폭로한 지명한 씨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천지의 포교전략을 다뤘고 8월 5일에 방송된 두 번째 시간에는 신천지피해자 전문상담사역자인 강성호 전도사와

신천지 취재를 담당했던 최경배 기자로부터 피해사례에 대해 들어봤다.

또 8월 12일에 방송된 세 번째 시간에서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로부터 교주 이만희를 보헤사라고 선전하는 신천지 교리의 이단성을 설명

들었다.

CBS광장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팟캐스트로 다시 들을 수 있는 CBS광장의 신천지 대책 3부작 기획시리즈는 신천지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나 일선교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신천지 OUT〉을 주위에 널리 알려주세요

1. 교회 홈페이지에 〈신천지 OUT〉 배너를 달아주세요

- ① 〈신천지 OUT〉 사이트 방문 : antiscj.cbs.co.kr (또는 <http://antiscj.cbs.co.kr>)
- ② 좌측 메뉴에서 '배너달기' 선택
- ③ 적절한 크기의 배너를 선택하여 소스를 복사하고, 원하는 홈페이지 위치에 붙여넣기

2. 교회 주보에 〈신천지 OUT〉을 소개해 주세요

- ▶ CBS가 신천지의 이단성과 폐해를 고발하는 [CBS특별기획] '한국 교회를 지키자' 〈신천지 OUT〉 웹사이트 (antiscj.cbs.co.kr)를 오픈했습니다. 신천지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단집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신천지OUT〉 사이트를 주위에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CBS가 이단세력 신천지 척결을 위한 웹사이트 〈신천지OUT〉 (antiscj.cbs.co.kr)를 오픈했습니다. CBS의 〈신천지OUT〉 사이트를 방문해 신천지의 이단성과 폐해를 자세히 살펴보고, 신천지에 절대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CBS 방송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뉴미디어

뉴미디어에 의해 선교의 개념과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방송선교는 이시대의 가장효율적인 선교방식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기회입니다.

- 시 간** 선교사의 언어습득 기간 10년 >> **현지어 자막으로 실시간 전달**
- 문 화** 문화적 격차로 현지 부적응 >> **한류에 실어 현지친화적 접근**
- 비 용** 수백억의 막대한 선교비 지출 >> **저비용, 고효율의 방송선교**
- 공 간** 생명위협 등 위험한 선교활동 >> **어디든지 찾아가는 초월성**



<http://love.cbs.co.kr>

선교후원 안내
02.2650.7004

CBS선교후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802-25-0009-268 우리은행 212-001999-13-045

예금주: (재)CBS

선교후원 ARS
060.600.7004

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CBS,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최강자를 꿈꾼다

스마트 폰 사용자가 3천만 명에 달하면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바야흐로 활짝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 소비의 중심도 과거 신문과 방송, 잡지 등 전통 매체들로부터 웹과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과 스마트 태블릿(PC), 스마트 TV 등의 스마트 기기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선교기관이자 58년 전통의 언론기관인 CBS는 이에 따라 국내 언론기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확산에 나서고 있다.(그림 참조)

현재 CBS의 방송 콘텐츠는 지상파 라디오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 미디어 소비자가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다.

특히 CBS가 자랑하는 노컷뉴스의 경우 스마트 기기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스마트폰 어플, 노컷뉴스 모바일 웹 어플, 아이패드 어플, 스마트 TV 어플)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방송

과 웹·모바일은 물론 종이 신문(무료 일간지 '노컷뉴스')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뉴스 매체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CBS의 이런 스마트 미디어 운영 현황은 국내 미디어 기업들 가운데는 매우 독보적인 것이어서 사실상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BS는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의 유통뿐 아니라 미디어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데도 주력해 명실상부한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최강자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CBS는 최근 '스마트 아카데미'를 열어 정보기술(IT) 및 미디어 변화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에 돌입하는 등 스마트 미디어 형 콘텐츠 기획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3주간 외부 전문가 특강과 워크샵 등으로 강도 높게 운영되고 있는 CBS의 스마트 아카데미

는 CEO를 비롯한 간부급 직원 약 200명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내 언론사 중에

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시도다.

CBS는 앞으로 스마트 미디어

를 통해 양질의 크리스천 콘텐츠를 확산해 궁극적으로는 '땅끝선교'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CBS 스마트 미디어 운영 현황



2012 HD 고화질 방송을 위한 CBS 후원 특별 방송

방송 : 2012년 10월 23일 (화)

2012년 CBS는 “땅에서도 이루소서”라는 주제로 후원특별방송과 캠페인을 펼친다.

2013년 디지털 의무방송시대를 앞두고 CBS는 지난해에 이어 HD방송시스템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CBS가 세상에 위치하지 않고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께서 지난해 특별모금방송에 보내주신 성원으로 CBS는 12억원이 소요된 HD 주조정실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선교의 HD방송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올해는 60억원이 소요되는 HD제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CBS 58년은 방송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한결같은 소명의 시간이었다. HD방송시스템의 완성은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원하시는 CBS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희어져 추수 하게 되었도다(요4:35)’라고 말씀하신 세계선교의 때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를 당부드린다.



2013년 디지털 의무방송을 앞둔 시점에서 CBS는 60억원이 소요되는 HD제작시스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280-100991

CBS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 잃어버린 생명과 영혼을 찾겠습니다

CBS방송이 닿는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잃어버린 생명과 영혼을 찾기 위한 방송선교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2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습니다

첨단 미디어에 의해 선교의 개념과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방송선교는 이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선교방식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통로>입니다

3 이단 세력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겠습니다

CBS는 전사적 차원에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과의 영적전쟁을 시작하고, 한국교회와 연대해 이단 척결에 나섭니다

4 HD방송을 통한 효과적인 방송선교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최상의 품질로 전 세계에 전송하여 복음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하는 선교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2012년 HD 방송 시스템 구축 비용

설비 내역	구축 내용	예산 비용	비고
송출 시설	주조정실 송출 시스템	12억	2011년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 구축완료 *
제작 시설	제작 스튜디오 및 부조1실 다목적(뉴스) 및 부조 종합편집실 CG실	34억	제작스튜디오 1실-카메라 5대 뉴스 및 다목적 스튜디오 1실-카메라 4대 종합편집1실-선형 및 비선형 하이브리드 편집 CG실- 문자발생기 3대
취재 장비	취재용 카메라 현장 편집기	8억	HD급 취재용 카메라-6대 HD VJ 카메라-25대 HDV DECK-8대
NPS시스템	각종서버(MAM솔루션) 중앙스토리지 아카이브 시스템 NLE편집기	18억	보유 콘텐츠 아카이브 인제스트 소요기간 약 1년

HD 제작시스템 구축 비용

60억

“1등 하고 싶어 매일 11시 11분에 기도”

유도 금메달 리스트 김재범 선수, ‘새롭게 하소서’ 출연



려야 했던 이번 올림픽은 그에 게 놀라운 간증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왼쪽 어깨, 팔꿈치, 손가락, 무릎, 허리 등... 부상이 많은 몸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한 그는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렸다. 금메달 획득이 확정된 순간 그는 매트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며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었다.

천국훈련이라 생각하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임했고, 주일에는 물론 수요일에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거르지 않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1등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기도시간을 11시 11분으로 정했어요” 매일 오전 11시 11분마다 그는 1등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렸고, 훈련으로 시간을 맞추지 못할 때는 잠시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또한 밤이 되면 10시04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순간 기도로 경기를 준비해 왔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가 부상으로 좋지 않은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음을 그는 고백했다.

4년 전 베이징 올림픽 이후, CBS TV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그는 “4년 뒤 런던올림픽에서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내겠다”는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켜냈다. 그리고 4년 후 그는 약속했던 금메달을 목에 걸고 다시 CBS TV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 자신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뜻 깊은 간

증의 시간을 가졌다. “제 힘으로 메달을 따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주실 줄 믿고 있었습니

는 금메달 보다 값진 신앙을 고백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가 2012년 런던 올림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금메달보다 더 값진 ‘믿음’의 승리였다.



9월 3일 방송된 CBS TV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금메달입니다’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 편은 <http://www.cbs.co.kr>에서 다시 볼 수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화재의 인물이자 올림픽을 빛낸 영웅! 패기의 사나이!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그의 승리가 더 빛나는 이유는 모든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이다. 부상 때문에 최악의 컨디션으로 치

훈련도 신앙생활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는 지독한 연습벌레이자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모두가 지옥훈련이라고 말하는 선수촌 훈련시간을

사랑의 교회에 30년 출석한 초창기 교인으로 오랜시간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오신 권사님은 2년전 육한 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암으로 투병 중이던 남동생도 하늘나라로 가고, 또 전도한 청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충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이 와 새벽기도도 못 나갈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CBS 가스펠아워를 알게 되었고, 매일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말씀을 들으며 기쁨이

회복되고 불면증까지 사라지는 치유를 경험하셨다고 하신다.

이후로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가스펠아워 제작진을 가끔씩 찾아와 대화도 하고,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보면서, CBS 방송을 통해 전세계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의 중요함을 깨닫고 열방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 동참하고자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랑의교회 000 권사님

뉴질랜드 선교장학생 12년간 700명 지원

제26기 선교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가져

CBS와 뉴질랜드 에딘버러칼리지(이사장 이은태 목사)는 제26기 CBS 뉴질랜드 선교장학생 31명을 선발하고 8월 7일 CBS예배실에서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지난 12년간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통한 선교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온 이은태 목사(에딘버러칼리지 이사장)와 CBS가 함께 하는 장학 프로그램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미자립 교회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들에게 영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실시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모든 목회자·선교사 자녀 뿐 아니라 세례교인 이



CBS와 뉴질랜드 에딘버러칼리지(이사장 이은태 목사)는 제26기 CBS 뉴질랜드 선교장학생 31명을 선발하고 8월 7일 CBS예배실에서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상, 선교에 소명을 가진 일반 대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지금까지 700명이 넘는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장학혜택을 누려왔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2012년 8월부터 6개월간 뉴질랜드 에딘버러칼리지에서 영

어연수 및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뉴질랜드 교육부가 선정한 최우수 영어교육기관 에딘버러칼리지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 오클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온 200여명의 학생들이 전문영어연수를 받고 있다.

감동의 후원 스토리

젊은 시절 교단에서 후학을 양성하시다 정년퇴직하시고, 남편, 막내 따님과 함께 살고 계신다는 권사님은 언제나 CBS TV를 켜 놓고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등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취미로 성경암송을 즐겨하신다고 하시는데, 손자들이 영어학원 다니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일흔이 훨씬 넘은 연세에 영어로 성구를 암송하여 가족들 앞에서 들려주니 영어학

원 다니기 싫다는 말이 쑥 들어가더라는 말씀에 정말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쑥쑥한 목소리와 밝은 웃음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는 말씀을 쉬지 않으신 권사님께서 꼭 안고 있는 가방을 열고 봉투를 꺼내셨다. CBS에 너무 감사해 꼭 현금을 하고 싶어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 평소 생활비를 아껴 오랫동안 정기적금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중앙교회 000 권사

CBS 라디오, 한국방송대상 뉴스·시사부문 휩쓸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BS의 저력을 과시



제39회 한국방송대상 CBS 수상자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뉴스·시사부문 휩쓸어 CBS의 저력을 과시했다.

9월 3일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제39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CBS 라디오가 작품상 12개 부문 중 뉴스·보도부문, 시사·보도제작부문 등 5개 부문을 석권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BS의 저력을 보여 주었다.

우선 '방송인 강호동 탈세 CBS 단독보도'(곽인숙 기자)가 뉴스·보도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당시 이 보도는 강호동씨 탈세 진상조사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연예인뿐 아니라 사회지도층의 '탈세'에 대한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시사·보도제작부문 작품상을 수상한 <김현정의 뉴스쇼> '특별 기획, 한 달간의 민생탐방'(손근필 PD)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민생현장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유럽경제위기 및 경기침체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긴급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제주CBS의 기획보도, '우리'는 외국인 선원, 노예가 아닙니

다(김대희 기자)는 지역다큐멘터리 부문을 수상했다. 제1회 인권보도상도 수상한 이 작품은 제주, 부산지역 외국인 선원의 노동실태를 6개월간 취재해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노동자의 실태를 잘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취재보도 부분에는 전북 CBS의 '현직 군수와 후보들, 브로커에 줄줄이 노예각서' 보도(이균형 기자)가 수상했다. 이 보도는 '임실군수의 잇따른 낙마 배경 뒤에는 브로커와 노예

각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해당 브로커 2명이 구속됐으며, 지난해 한국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오미희의 행복한 동행'(박재철 PD)은 그림을 상상하며 갤러리 여행을 떠나는 '그림 속을 거닐다' 등의 코너를 통해 듣는 매체인 라디오에 상상력을 불어넣어 대중음악프로그램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이 인정돼 문화예술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개인상 부문에서는 CBS가 추천한 가수 박완규 씨와 성우 구자형 씨가 선정됐다.

이로써 CBS는 올해 실시된 한국PD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한국방송대상 등 국내 3대 방송대상 모두에서 라디오 작품상 부문 최다 수상의 놀라운 성과를 보여 주었다.

1954년에 설립된 CBS는 지난 58년간 "한국 최초의 민간방송", "한국 교회가 세운 대표 기독교언론"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CBS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모바일 등 CBS의 모든 매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C / B / S / 단 / 신

제23회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CCM의 대중화와 기독교 찬양문화의 바람직한 콘텐츠로 자리매김 한 CBS 크리스천뮤직페스티벌이 올해로 23번째를 맞는다.

1990년 제1회 CBS창작복음성가제를 개최한 이래 지난 22년간 CBS는 한국 교계에 찬양문화의 새로운 비전과 열정을 제시하고 많은 찬양 사역자를 발굴 양성해 한

국의 '크리스천 음악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 받아왔다.

올해는 1차 심사후 2차 예선을 거쳐 10월 29일(월) 저녁 7시 대부도에 있는 아일랜드리조트(회장 권오영) 내 아일랜드교회 야외 콘서트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와 감동의 무대로 진행 된다.

사랑으로 하나된 CBS '통(通)해야' 콘서트

CBS '통(通)해야' 콘서트가 올해는 지난 6월 26일 경기도 수원 경기문화의전당에서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성황리에 펼쳐졌다.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한 이 콘서트에는 가수 박완규, 안치환, 정수라, 적우 등 인기가수들과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레인보우가 출연

해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은 다르지 않은 우리의 벗이자 가족"이라고 노래했다.

2004년 이후 CBS가 지속적으로 열고 있는 '통(通)해야' 콘서트는 처음 3년간 금강산에서 열렸고, 이후 이 땅에 사는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을 위해 해마다 열어왔다.

발레 <백조의 호수> 성황리 개최

CBS가 창사 58주년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발레단의 발레<백조의 호수>가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러시아 3대 발레단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발레를 선보여온 노보시비르스크 국립 오페라발레극장의 발레단

90여명이 내한해 펼친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 클래식 발레의 전통과 안무를 완벽하게 계승을 했고 키로프, 볼쇼이, 뉴욕시티 발레, 영국 로열 발레의 주역으로 활동한 발레스타 이고르 켈렌스키의 새로운 해석과 섬세한 연출력으로 객석을 가득 메운 2,200여명의 국내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필사본 쓴 신앙과 열정”에 감동

전북CBS 창립 51주년 기념, 성경 필사본 전시회

전북CBS 창립 51주년 기념, 제1회 성경필사본 전시회가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10일 시작된 전시회는 전시회장을 찾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일주일 더 연장해 진행됐다.

이번 성경 필사본 전시회는 성도들의 맑고 정성이 녹아있는 총 94점의 필사본이 전시됐으며, 이들 필사본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혹은 유언을 대신하기 위해서 쓴 것은 물론 주일학교 학생부터 여든을 넘긴 할머니까지 전 교인이 동참해 이루어진 필사본과 93세의 여권사님이 옛 모습 그대로 붓으로 필사한 두루마리 필사본 등 저마

다 뜻깊고 소중한 사연을 담고 있었다.

전시회장을 찾은 성도들은 한결같이 “필사본을 쓴 분들의 신앙과 열정”에 감동했으며 “도전을 받게됐다”고 고백했다.

전시회가 열리는 동안 전북 CBS 1층 로비에는 매일같이 수백명에 달하는 발길이 이어졌으며, 7천여명의 성도가 전시장을 찾은 등 전시회 내내 크나큰 감동과 은혜가 넘쳤다.



전북CBS 창립 51주년 기념, 제1회 성경필사본 전시회가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모두 CBS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CBS를
보고 듣고 읽고 있습니다.

Smart CBS가 당신과 함께
바른 세상 따듯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